SW 꿈나무들아, 코딩 솜씨 뽐내보렴

〈소프트웨어〉

5월 27일 제1회 전국어린이코딩대회

스크래치 프로그램 활용…독창성 등 심사
참가비 3만원…4월 20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 세계적으로 코딩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재양성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코딩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1:1 코딩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제공 | 와이즈교육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어린이 창의력 개발과 논술토론, 코딩 홈스쿨을 운영 중인 ㈜와이즈교육(대표 황규동·www.wiseweekly.co.kr)이 주관하는 제1회 전국 어린이 코딩 경진대회가 오는 5월 27일 낮 12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내 최초의 코딩 대회로 (사)대한민국청소년로봇연맹이 후원한다.

대회는 초등학교 1·2학년 부문, 3·4학년 부문, 5·6학년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미국 MIT 대학에서 개발한 스크래치(scratc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 실력을 겨룬다.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codingcontest.or.kr)에 온라인으로 4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입상한 참가자들에게는 각 부문별로 대상(동아일보 사장상), 금상(스포츠동아 사장상), 은상(사단법인 대한민국청소년로봇연맹 총재상), 동상(와이즈교육 대표상), 기타 장려상 등이 시상된다.

참가자들은 5시간 동안 주어진 주제에 맞춰 게임, 학습, 실용 등의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코딩하여 제출하면 된다. ㈜와이즈교육 코딩 프로그램 연구진, 기자, 외부 코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단이 주제의 적합성, 독창성, 실용성, 프로그램 활용도,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코딩 능력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넘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의 필수요건으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 걸쳐 유아 때부터 의무 코딩 교육을 강화한 지 오래됐다. 우리나라 역시 2018년부터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편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진 실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코딩 훈련 프로그램으로 앱 개발…창의력 쑥쑥

이젠 코딩이다 1 코딩이란?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와이즈교육이 주관하는 제1회 전국 어린이코딩경진대회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코딩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용어부터 상식과 응용에 이르기까지 코딩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재미있게 전해 드립니다.

자바 등 컴퓨터언어로 프로그램 짜는 작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게 실습 가능
내년부터 초·중·고 정규과정서 코딩 교육

스포츠동아·㈜와이즈교육 공동기획

코딩(Coding)은 자바(java)나 C 등 어려운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컴퓨터, 핸드폰 등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을 짜는 일이다. 그러나 어린이 코딩 교육은 이런 언어 대신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코딩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 짜는 것을 실습할 수 있다. 게임을 즐기던 아이가 스스로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코딩이 중요한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모든 생활에 컴퓨터가 기본이 됨으로써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염두에 둔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인재의 필수조건이 되어서다.

데이터정치연구소 최광웅 소장에 따르면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던 발트해 연안의 에스토니아는 인구 125만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이 5배로 껑충 뛰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8000달러에 달하는 강소국이 되었다. 그 배경엔 강력한 전자정부와 1990년대 기간 중 모든 학생들에 대한 코딩 교육,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인터넷 보급률에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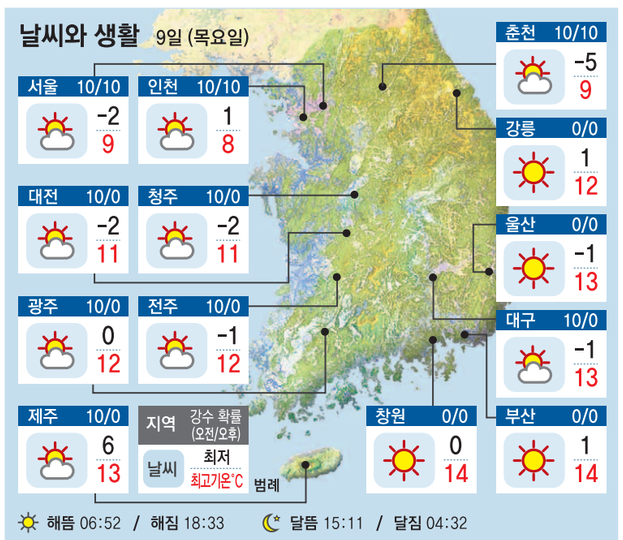
거기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일반화됐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처럼 컴퓨터가 똑똑해져 인간의 두뇌까지도 대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인공지능, 3D프린팅, 사물인터넷, (자동차)자율주행, 로봇, 나노기술 등은 하나하나가 이미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했던 혁신과 변화를 부르고 있다. 이들의 공통요소가 바로 소프트웨어. 다음 세대들은 피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오래 전부터 정부가 캠페인까지 벌이며 어린이 조기 코딩교육을 독려하고 있다. 세상을 떠난 천재 스티브 잡스(애플)는 물론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마크 주커버그(페이스북) 등 글로벌 CEO들도 연일 코딩교육을 강조한다.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일본 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정규과정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주성규 와이즈교육 코딩연구실 선임연구원

날씨와 생활 9일 (목요일)



해뜸 06:52 / 해짐 18:33 달뜸 15:11 / 달짐 04:32

산 날씨

북한산	-2/9
설악산	1/11
오대산	-6/8
계룡산	-3/10
속리산	-5/11
소백산	-3/9
팔공산	0/13
지리산	-1/12
덕유산	-4/10
내장산	-1/11
한라산	1/9

바다 날씨

인천송도	1/7
제부도	0/8
경포대	1/11
속초	1/11
대천	-1/10
안면도 꽃지	0/9
변산반도	0/12
거문도	1/12
칠포	2/14
해운대	1/14
제주도	6/12

미세 먼지

서울	41	보통
부산	33	보통
대구	28	좋음
인천	45	보통
광주	25	좋음
대전	36	보통
울산	25	좋음
경기	52	보통
강원	42	보통
충북	35	보통
경남	31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0일(금) 서울경기 -2/10 영동 1/11 충청 -1/11 호남 1/13 영남 3/14 제주 7/13
11일(토) 서울경기 0/12 영동 3/13 충청 -1/13 호남 1/15 영남 4/15 제주 5/14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9일(목요일) 음력:2월 12일

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지나친 야망을 버리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긴 안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길방:동
소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마음. 운세: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어렵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며 기다려야한다. 길방:남
토끼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어떠한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미혼자는 결혼 성사되며 취업 운이 좋은 날이다. 길방:남
용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고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마음은 있어도 생각과 몸이 따르지 않는다. 취침시 베개는 동북방향이 좋다. 길방:서
뱀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투자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오늘은 월살 일이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시행착오를 조심하라. 길방:동
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떳떳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된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길방:동
양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오늘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날이다.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길방:북
개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행동에 옮겨야 한다. 길방:서
돼지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시시한 일들로 인해 훼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 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길방:서
재운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4,7,9,(5,0)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쥐,용,원숭이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소,뱀,닭

피플

■ 인사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장 심용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승진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 강석연 ◇서기관 승진 ▲의약품안전국 김일수 ▲의료기기안전국 오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운환 ◇기술서기관 승진 ▲식품안전정책국 최용훈 ▲기획조정관실 오정원 ▲소비자위해예방국 박종필

■ 동정

제4대 부동산개발협회장에 문주현 회장 재추대

문주현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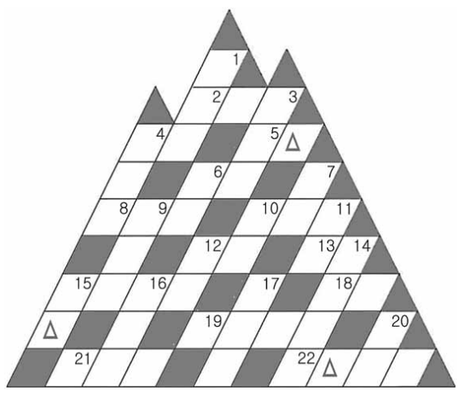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이 제4대 회장에 재추대됐다. 문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3대 회장에 취임해 회원사를 950%·자산을 300% 이상 늘렸고, 호남지회와 영남지회를 출범시켜 전국적인 조직으로 키워냈다. 조찬강연회·정책연구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뒀고, 특히 법정 교육인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지난해에만 1070명이 수료해 전체 누적 배출인력이 1만명을 돌파했다. 문 회장은 "부동산개발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디벨로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부동산 개발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의 경쟁력을 기르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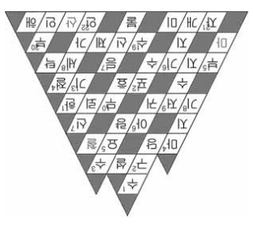
■가로열쇠

02.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04.집의 앞이나 뒤에 평평하게 닦아 놓은 땅. 05.오목함과 볼록함. 06.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 08.어린아이의 똥오줌을 받아 내기 위하여 다리 사이에 채우는 물건. 10.일정한 직업이 없이 돌아다니며 불량한 짓을 하는 사람. 12.사나운 짐승이 울부짖음. 또는 그 울부짖는 소리. 13.두려움, 놀람, 충격 따위로 한동안 정신을 잃음. 15.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음. 또는 그렇게 많은 수효. 18.주로 기계를 이용하여 더러운 옷이나 피륙 따위를 빠는 일. 19.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림. 21.겨드랑이나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자ㅇㅇ' 22.사람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모인 상태를 이르는 말.

■세로열쇠

01.옛 제도를 지키기를 주장하는 당파. 03.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의 양. 04.논밭의 넓이의 단위. 한 말의 씨를 뿌릴 만한 넓이. 06.염치없이 먹을 것이나 탐하는 사람. 07.굳게 믿고 의지함. 09.물을 모아 두기 위하여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큰 못. 10.행위자가 목적으로 한 법률상의 효과가 없음. 11.병적으로 느끼는 추운 기운. 12.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14.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15.임금의 사위. 'ㅇㅇ'도위 16.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17.사람의 크기와 같게 만든 불상. 20.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 퍼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칸의 글자를 차례로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 이름이 됩니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인쇄 동아일보사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59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경제부 02 2020 1062
뉴미디어전략팀 02 2020 1027
사진부 02 2020 1069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